

# 지동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순항'



### 천년 은행나무와 30년생 잣나무 숲 장관

포천시는 낙후된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통해 산림사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활력있는 산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포천 지동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신북면 금동리 605번지 일원에 추진 중에 있다.

포천시는 낙후된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통해 산림사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활력있는 산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포천 지동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신북면 금동리 605번지 일원에 추진 중에 있다. 산촌마을 조성사업의 중심지인 산림문화휴양관은 2층 건물로 산촌마을 조성사업의 중심지로 1층은 산촌세미나실, 2층은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촌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산촌민속체험관 4동을 숲속 오두막집으로 조성하여 산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동산촌 생태마을의 진한 향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숙박체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산촌생태마을의 주민소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닐 하우스 18동을 신축하였고, 현재 6동에는 복분자 묘목을, 3동은 참나

무 자목 3,000본에 표고 종균을 접종했으며 나머지 9동에는 산채(곰취)를 심어 주민소득을 올릴 예정이다.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포천 지동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천년수 은행나무를 비롯한 30년생 이상의 잣나무숲으로 온 마을이 둘러싸여 있어 산림욕 장소로는 그만일 만큼 잘 정돈된 숲과 산책로가 있는 지동산촌 생태마을은 명실공히 포천시 산촌마을 개발사업 1호이다. 박찬영 산림복지과장은 지금 추진 중인 지동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전국 최고의 명품 산촌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마을에서 산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를 떠나 자연을 느끼고 싶은 분들을 한눈썹 방문할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 포천시 천보산 시립자연휴양림 조성

### 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09년 본격 개발

포천시는 동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천보산에 시립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시립자연휴양림 예정지구는 천보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보산은 양주시와 포천시를 가르는 산줄기 중앙부에 우뚝 솟아 있는 압봉으로 갈나무, 소나무 등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으로 울창하게 어우러져 주변경관이 수려하다.



포천시는 동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천보산에 시립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자연휴양림 중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수도권 시민의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주요 시설은 잔디, 데크 등 인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비롯, 임도를 활용한 미니어처 게임장, 치초피드, 허브 등의 자연치유실, 연산홍 등 관상수 공원, 물놀이장, 등산로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기 중앙부에 우뚝 솟아 있는 압봉으로 갈나무, 소나무 등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으로 울창하게 어우러져 주변경관이 수려하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자연휴양림 중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수도권 시민의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주요 시설은 잔디, 데크 등 인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비롯, 임도를 활용한 미니어처 게임장, 치초피드, 허브 등의 자연치유실, 연산홍 등 관상수 공원, 물놀이장, 등산로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 "모셔다 검진해 드리겠습니다"

### 포천시 보건소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눈높이재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포천시 보건소(소장: 정연오)에서는 지립적으로 병원을 찾을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 동안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봄 한 차례 실시한 이 사업은 보건소 재활 팀이 구급차와 방문보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보건소로 모셔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다시 가정에서 모셔다드리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검사내용으로는 내과, 소아과, 정맥검사, 방사선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는 물론 골 밀도 검사와 장애인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구강검진을 함께 시행하며 즉석에서 필요한 치료까지 곁들여 있어 중증 장애인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정수준 소장으로 인한 전신마비로 18년째 침상생활을 하고 있는 강모(48세)는 보건소 재활 팀이 아니면 검진을 고사하고 외출하는 것도 어렵다며 건강검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재활 팀 관계자는 보건소가 일반 의료시설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길은 의료소의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길이라며 장애인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볼 때 큰 보람을 얻는다고 말했다. (신청: 보건소 눈높이 재활팀 538-3533)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치료까지 곁들여 있어 중증 장애인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정수준 소장으로 인한 전신마비로 18년째 침상생활을 하고 있는 강모(48세)는 보건소 재활 팀이 아니면 검진을 고사하고 외출하는 것도 어렵다며 건강검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재활 팀 관계자는 보건소가 일반 의료시설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길은 의료소의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길이라며 장애인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볼 때 큰 보람을 얻는다고 말했다. (신청: 보건소 눈높이 재활팀 538-3533)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보건소에서는 지립적으로 병원을 찾을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 동안 장애인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 일동여성예비군 창설1주년 기념식

### 서바이벌 게임 등 임무수행 향상 훈련 실시

포천시 일동 여성예비군소대는 지난 9월 26일 5군단을 비롯해 포천시 최초로 창설된 이래 창설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일동 무리울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운기 일동면장을 비롯한 일동면민들의 활력으로 월남 또는 월북 당사자의 토지처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해결을 위해 통일 한국의 체제 유형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여러 안이 제기되었지만 일본에 의한 토지 처리에 관한 적법성과 과거 불건전 토지 소유 관계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분단으로 인하여 월남한 남한 주민의 북한 소재 토지와 월북한 북한 주민의 남한 소재 토지의 소유권 반환 주장에 대한 문제와 토지개혁 등으로 보상 없이 몰수된 원소유자의 토지 개혁의 불합법성을 근거로 한 소유권 반환청구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예상된다. 북한 토지의 정리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아래의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러한 문제가 전부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전부에 대하여 논의할 수는 없기에 위의 정리방안에 있어서의 각 원칙에 따른 장·단점에서 세계 한 사람을 다룬다.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화왕 소대장은 소대원들과 함께 창설된 지난 1년간 독거노인에게 설맞이 떡 전달, 8시간 불우봉사 1촌맺기, 전방부대 경제체험, 참관용사 위안행사 등 지역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안보는 물론 훈훈한 사회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동여성예비군소대는 앞으로도 지역봉사활동은 물론 군부대외도 협력체제를 굳건히 하여 민·군 협력사업에도 앞장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일동 여성예비군소대는 창설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일동 무리울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운기 일동면장을 비롯한 일동면민들의 활력으로 월남 또는 월북 당사자의 토지처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해결을 위해 통일 한국의 체제 유형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여러 안이 제기되었지만 일본에 의한 토지 처리에 관한 적법성과 과거 불건전 토지 소유 관계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분단으로 인하여 월남한 남한 주민의 북한 소재 토지와 월북한 북한 주민의 남한 소재 토지의 소유권 반환 주장에 대한 문제와 토지개혁 등으로 보상 없이 몰수된 원소유자의 토지 개혁의 불합법성을 근거로 한 소유권 반환청구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예상된다. 북한 토지의 정리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아래의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러한 문제가 전부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전부에 대하여 논의할 수는 없기에 위의 정리방안에 있어서의 각 원칙에 따른 장·단점에서 세계 한 사람을 다룬다.

## 목회단상 사명(使命)

영국의 교육가 힐리는 말하기를 "사람의 가장 행복한 때는 사명을 깨닫는 때"라고 이야기 했다.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는 덴마크의 이야기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지만 한때는 술집과 창녀들로 북비며 도덕적인 타락으로 망하기 일보 직전인 때도 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룬트비라는 유명한 목사가 나타나서 전 국가적으로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해서 덴마크는 지금의 소위 "지상낙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 그 나라의 교도소에는 보통 흰기가 게양된다고 한다. 그것은 교도소 안에 죄수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만일 죄수가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흰기가 대신에 붉은기가 게양된다. 만일 붉은기가 오르게 되는 날에는 전국의 교회가 일제히 종을 친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회개(悔改)의 기도를 드린다. 자기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죄의 색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덴마크가 범죄 없는 지상의 낙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 세상은 범죄와의 전쟁(戰爭)을 선포하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만큼 어둡고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 자신들이 부패(腐敗)하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지 않았더라도 부패를 막지 못할 책임이 통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곧 잘 착각하며 살아간다. 나 자신과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양 타인들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부패한 사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공범'을 몰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명하셨다. 마태복음 5장 13~15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밭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火)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문의) 031-532-2489

## "나도 커서 경찰 될래요"

### 포천경찰서 유치원생에 경찰서 개방행사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10월 9일 관내 공룡어린이집 원생 140여 명에게 경찰서를 개방하여 경찰업무, 각종 장비소개, 활동사항을 견학시켜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찰서를 방문한 원생들은 4층 강당에서 교통안전교육 및 미방치예방법대책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시작으로 경찰장구류 견학 및 전·의경의 시범으로 진압장면을 구경한 후, 112신고센터로 이동하여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경찰이

저서들이 출동하는지에 대해 견학한 후, 경찰서 전정에서 싸이카 시승 및 기념촬영을 끝으로 견학행사를 마쳤다. 이번 경찰서 견학을 통해 방문 지도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경찰의 친절하고 따뜻한 배려에 고마움을 전했고 담당직원은 "경찰서는 항상 전·의경의 시범으로 진압장면을 구경한 후, 112신고센터로 이동하여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경찰이



포천경찰서는 10월9일 관내 공룡어린이집 원생 140여명에게 경찰서를 개방하여 경찰업무, 각종 장비소개, 활동사항을 견학시켜주는 시간을 가졌다.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신청 접수

포천시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 1급 대상자로서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서비스 내용은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보조, 산병처리 등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10일이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1-538-2238)에게 하면 된다.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 송우APT 단지 경유 시내좌석 노선 개통

포천시는 송우APT단지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10월 7일부터 포천교통의 138-2번 시내좌석 노선을 신설하여 30회를 증회하기로 했다. 버스 신설로 출퇴근 시간 내는 7~8분, 주간시간 때는 10분 내

외로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운행할 예정이며, 기 운행 중인 72-3번 노선에 지속적으로 증회 운행할 예정이어서 송우APT단지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①**  
**경제 통합의 문제**



서희석 대전지역개발연구원 대표이사

통일 한국의 토지제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현 남·북한 토지제도의 차이 즉 토지소유의 형태가 극단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가 남한의 경제 질서로 수용되면 사유화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의 통합은 남북의 경제 체제를 비교·분석하여 남북의 경제 체제를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한의 경제 체제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기구를 요소로 하는 시장경제질서(Marktwirtschaft)이고 북한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국가의 계획·조정에 의해 운영되는 계획경제질서(Zentralverwaltungswirtschaft)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구분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는 순수한 경제 체제의 본질이 그 원인이다. 경제 체제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나 큰 범주에서 경제체제의 포섭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로 분류되어 있다. 통일에 있어 어떤 경제 체제가 바람직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현실적 실패로 인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 내지 자본주의의 요소 도입은 이러한 문제의 결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국유재산과 경제 체제를 사유화하고 시장경제체제로 편입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 통일 후 남북한의 이질적인 경제 체제를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하나의 단일화된 경제 질서로 통합 가능할 것인가의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하나 남북통합에 있어 경제 질서의 통합 모델은 토지제도의 결정에 중요한 원리로서 작용하게 되며 통일 한국 토지제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남북통합 경제 체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 통일 후 남북한의 경제 체제를 개혁하는 방법이 문제된다. 특히 통일 후 경제 체제의 통합에 따른 남북한 각 경제 질서 변화의 합리적 운영 방법의 문제일 것이다. 이는 곧 법률의 통합과도 문제가 된다. 경제 체제 전환(Economic System Transformation)은 한정된 지역에서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경제 질서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법규의 적용이 무효화되고 다른 경제 질서나 법규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일시에 처리한다면 많은 혼란과 후유증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합리적 경제 통합에 대한 방법론의 연구가 필요하다. **침해 토지의 처리 문제** 해방 이후 남북분단으로 남북의 토지제도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각기 다른 변화의 길을 걸었다. 북한 지역의 토지는 해방 이후 1946년 3월 무상몰수·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의 단행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가 정착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토지는 몰수되거나 국가 또는

협동조합의 소유로 전환되었다. 남한의 경우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 처리와 정부 수립 후의 농지개혁법 제정 등으로 농지를 개혁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토지 처리를 행함에 있어 무상몰수에 의한 불법적 방법, 남한은 귀속재산의 매각과 농지개혁에 있어서의 실패 등의 문제점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월남과 남한 주민의 월북으로 월남 또는 월북 당사자의 토지처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해결을 위해 통일 한국의 체제 유형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여러 안이 제기되었지만 일본에 의한 토지 처리에 관한 적법성과 과거 불건전 토지 소유 관계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분단으로 인하여 월남한 남한 주민의 북한 소재 토지와 월북한 북한 주민의 남한 소재 토지의 소유권 반환 주장에 대한 문제와 토지개혁 등으로 보상 없이 몰수된 원소유자의 토지 개혁의 불합법성을 근거로 한 소유권 반환청구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예상된다. 북한 토지의 정리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아래의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러한 문제가 전부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전부에 대하여 논의할 수는 없기에 위의 정리방안에 있어서의 각 원칙에 따른 장·단점에서 세계 한 사람을 다룬다.